

“광주 수돗물 연 110억 어치 땅속으로 사라져”

광주시의회 시정 질의

광주시의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광주지역 수돗물 누수와 방음터널 설치를 조건으로 진행된 2순환도로 주변 아파트 건축허가 과정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18일 광주시의회 유정심(국·남구2)의원은 이날 시정질의에서 “광주시 연간 누수 현황에 따르면 2013~2016년 이 지역 누수량은 7285만t에 달하며, 이를 t당 생산원가로 계산하면 이 기간 445억원, 매년 110억~121억원 가량의 수돗물이 누수로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942만t, 2014년 1831만t, 2015년 1753만t, 2016년 1758만t 등이다. 4년 평균 누수율은 10.44%로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높았다.

여기에 계량기 불량·부정 사용량 등을

김치생산량 전국 1.05%...김치 중주도시 맞아

간선대로변 아파트 난립 무분별 건축 허가 탓

반영한 유효호수수량 금액 162억원(2013~2016년)을 더하면 4년간 607억원 규모의 수돗물이 사라진 셈이다.

김치 증가를 자부하는 광주시의 초라한 김치산업 지표도 문제로 제기됐다. 주경남(민·서구 4) 의원은 이날 “지난해 전국 김치생산량은 49만3575t인데 광주는 5200t으로 1.05%에 그쳤다”며 “전국 17개 시도 중 13번째에 불과해 광주 김치 산업은 허울뿐인 겉데기 산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광주 김치의 세계화를 가능케할 수 있는 수출량도 타 시·도보다 형편없이 낮았

다. 광주 김치 수출은 2014년 18t 1억5200만원, 2015년 25t 2억2200만원, 2016년 12t 6300만원에 그쳤다.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중 공동 14위로 겨우 꼴찌를 면했다.

이에 대해 윤장현 시장은 “전국 김치업체가 수도권에 37%나 집중된 데 반해 우리 지역은 소규모 영세업체가 대부분”이라며 “앞으로 ‘김치는 광주’라는 김치 중주도시로서 자부심을 놓치지 않고 소중한 자산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2순환도로 주변에 방음터널 설치를 조건으로 무분별하게 아파트 건축

허가 내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2순환도로와 주요 간선도로변에 설치된 방음터널은 9곳에 길이 2956m, 방음벽은 106곳에 2만5100m에 달했다. 2순환로 D아파트는 건설업체 부도로 100억원이 넘는 설치비용을 시민의 세금으로 떠안았다.

광산구 신창지구를 관통하는 2순환로 주변 B아파트는 최소 400억원대 방음터널 설치 필요성이 제기돼 비용부담 문제 등으로 시와 LH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주경남의원은 “간선대로변 아파트 건립은 소수 입주민과 건설업체의 이익보다는 대다수 도로 이용자의 편익과 시민 공공성이 우선해야 한다”며 “공공도로 내 방음터널 설치는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청 직원 출장 적립 마일리지 1952만마일

금액 3억9000만원 달해

통합해 공무 출장시 사용

광주시청 직원들이 출장으로 적립한 항공사 마일리지 1952만5000마일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김용집(비례)의원이 18일 내놓은 시정질문 자료에 따르면 2006~2017년 8월 1501건의 시정 공무원 해외 출장 마일리지 1952만5000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 1952만5000마일이 쌓여 있다.

마일리지 항공권 공제 기준으로 환산하면 1마일리지당 20원의 가치가 있다고 볼 때 3억9000만원 상당이 적립된 셈이다. 시정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이 잦아지면서 마일리지 적립도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4개년 동안 쌓인 마일리지만 대한항공 225만8000마일, 아시아나항공 97만마일, 기타 18만5000마일이다. 2014년에는 출장건수 64건, 출장인원 55명에 대한항공 32만3000마일, 아시아나항공 10만6000마일이 적립됐다. 2025년 68건·164명에 대한항공 46만3000마일, 아시아나항공 37만4000마

일이, 지난해에는 73건·151명에 대한항공 102만1000마일, 아시아나항공 19만마일이 쌓였다.

올해도 6월말 현재까지 31건·117명에 대한항공 45만마일, 아시아나항공 29만8000마일 등 해마다 적립되는 마일리지 양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마일리지를 사용한 경우는 최근 4년 동안 고작 7명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중앙부처의 경우 공적용 개시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미온적이다”며 “개인별로 관리되는 마일리지를 통합해 공무 출장시 마일리지부터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마일리지를 이용하는 보너스 항공권은 수량이 극히 제한돼 있어 사기 어렵고 이를 양도하는 것도 불가능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출장 전 항공 마일리지를 사전등록해 공무원의 여행이나 항공 10만6000마일이 적립됐다. 2025년 68건·164명에 대한항공 46만3000마일, 아시아나항공 37만4000마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내년 국고 확보 만전을”

이재영 전남지사 대행 당부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부임 후 첫 실국장 토론회에서 국고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18일 열린 토론회에서 이 권한대행은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 준비 관계로 자칫 내년 국고 확보 활동에 느슨해질 수 있다”며 “특히 지사가 없으니 그렇게 되더라도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각 실국에서는 내년 국고 확보에 많은 신경을 써달라”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정부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수시로 정부부처와 국회 등을 방문, 전남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의 필요성과 논리적 타당성을 설명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며 “국고 확보 활동을 위해서는 눈치보지 말고 출장을 가라”고 당부했다.

/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추석 연휴를 앞두고 18일 서울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를 찾은 이재영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과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판매부스를 돌아보고 있다. <전남도 제공>

새우자원 조성 무안·신안에 보리새우 300만마리 방류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전남 해양수산과학원은 18일 새우 자원 조성을 위해 무안, 신안 임자 해역에 어근 보리새우 300만 마리를 방류했다.

지난달 어미로부터 알을 부화·산란하고 30여 일간 관리한 것으로 평균 크기는 1.5~2cm다.

보리새우는 특성상 방류 해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성장, 다음 해 6~8월 15cm 이상 크기로 잡힌다. 25cm 이상 성장하기도 하며 지역에 따라 ‘꽃대하’, ‘오도리’라고도 불린다. 마리당 평균 5000~6000원에 거래되는 고급 품종이다. 자연산 생산에 100% 의존하지

만 2013년 28에 달했던 생산량이 2014년 8t, 2015년 12t에 그쳤으며 최근 점차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추수 감사 전통의례 ‘올개심니’ 체험 참가자 모집

전남도농업박물관

전남도농업박물관(관장 김우성)은 한해 첫 수확물을 조상에게 바치는 전통의례인 ‘올개심니(웃바심)’와 짚공예 체험 행사를 열기로 하고 무료 참가자 200여

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올개심니(웃바심)” 체험은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농업박물관 짚문화관 일원에서 열린다. 올개심니는 지역에 따라 올개심리·올바심이라고 하는데, 한해 첫 수확한 벼를 찧고 밥을 지어 가장 먼저 조상에게 ‘올개(일찍 된 벼)로 심례(마음의 예)를 올린다’는

뜻을 담고 있다.

행사는 의례마당으로 조성단지 길, 천신의례, 올벼이삭(신체) 걸기가 펼쳐진다. 또 체험마당으로 올벼 타작, 찌기, 말리기, 찧기, 인절미 떡매치기가, 나눔마당으로 올벼 밥, 인절미, 올벼 쌀(전 쌀) 등 음식 체험이 이뤄진다.

짚공예 체험행사에서는 전통 짚공예품 제작 전문가인 초고장(草工) 임채지 장인(전남도 무형문화재 제55호)이 직접 시연을 보인다. 참가 신청은 전화(061-462-2796) 또는 홈페이지(www.jam.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아·태 지질공원 총회서 무등산권 지질공원 인증 평가 받는다

19~22일 중 구이저우성서 열려

광주시, 입석대·죽녹원 등 소개

광주시가 무등산권 지질공원 유네스코 인증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는다.

광주시는 18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협의회 주관으로 중국 남부 구이저우(貴州)성에서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제5회 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 네트워크

(APGN) 총회에 참석, 인증을 위한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25개국 127개 지질공원 지역으로 구성된 APGN 총회에서 광주시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협의회로부터 무등산권에 대한 인증 평가를 받게 된다.

이번 평가는 다음달에 있는 2차 평가 전 초전 성격으로 사실상 인증 여부가 결정되며 광주시는 이 총회에 윤장현 시장의 친서를 전달, 지질공원 인증을 호소할 계획이다.

광주시 대표단은 총회에서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무등산권 지질공원’을 주제로 발표와 홍보부스 운영 등을 한다. 광주시는 또 무등산 입석대, 서유리 공룡 화석지 등 20곳의 지질명소와 아시아문화전당, 죽녹원 등 42곳의 역사문화 명소를 소개한다.

앞서 광주시는 2014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뒤 곧바로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나서 2016년 11월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자체 간 실무협의회 구성, 환경부 실사, 국내외 심포지엄, 지질전문가 예비실사 등을 진행해왔다.

지난 3월과 5월, 유네스코 현장실사와 무등산권 지질공원 국제워크숍 등을 거쳐 7월에는 유네스코 현장평가를 받았다.

한편,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 면적은 광주와 담양, 화순 일부 등으로 총 1051.36㎢다. 지질공원은 세계유산, 생물권 보전지역과 함께 유네스코 3대 보호제도 중 하나다. 무등산이 세계지질공원 인증이 되면 제주도, 청송에 이어 국내에서는 세 번째로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지역이 된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배려교통문화

마법처럼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길을 때는
무단횡단 안하기

주정차 할 때는
정해진 곳에 하기

운전하거나 길을 때는
스마트폰 사용안하기

주정차 할 때는
정해진 곳에 하기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불법주정차 신고 APP
안드로이드 아이폰